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

결과보고서

수다명	온단극장		
키워드	1. 예술창작	신청자	주혜원
프로젝트 결과	<p>쭈름을 통해 10월 19일 PM 9~11:20 까지 수다의 장이 열렸다. 작년 광주에서 열렸던 오딘 워크숍 이후 계속 만나 훈련을 같이 해오던 배우들도 있고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도 있어. 과거의 추억을 나누고 그리움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비슷한 에너지 장과 성향을 가진 예술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컸다. 다음은 우리가 나눈 질문과 대화이다.</p> <p>1. 코로나 시대에 공연이 취소되거나 언택트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사람과의 직접 만남이 중요한 연극판에서 그런 공연이 가능한가? (작성:김나라)</p> <p>윤수: 이런 고민을 한다. 연극이 뭐지? 연극성이 뭘까? 만약 연극이 영상화 된다면 기존 연극이랑 다르게 뭐지? 연극에는 관객, 무대, 배우라는 3요소가 있는데 만약, 관객이 없다면?</p> <p>영상이라는 예술창작도 많은 준비와 궁리가 필요하다. 공연이 영상화된 작업을 스크린으로 보았는데 뭔가 되게... 아쉬웠다. 이걸 어떻게 메꿀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긍정적인 부분은 좋았던 작품을 다시 볼수 있고, 접근성이 어려운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좋긴하다.</p> <p>그런데 관객들이 영상의 맛을 알고 연극을 보러 안올까 걱정된다. 그래서 언택트의 강조가 너무 무섭다.</p> <p>혜원: '연극의 매력은 이런거다!' 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해외 NT라이브는 엄청 디테일한 연출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그정도 퀄리티로 만들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이 영화를 대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길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언가 몸으로 교감하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했다. 연극을 안보던 사람들이 '와~저 연극, 공연을 직접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한 공연이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봤는데 별로 재미없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론 공연 작업자가 아닌 관객들과 같이 모여서 보니, '어머머!~' 하는 반응들을 보게 되어서 재미있었다.</p> <p>명희: 이번에 오프라인 공연을 하며 '관객이 안올까?' 걱정했다. 그 오프라인 공연이 베이비 드라마 즉, 1세 드라마라서 12개월 아기들이 무대</p>		

위로 올라와서 컨택하는 공연이었다. 12개월 미만 아기들은 '코로나 아기들'이라고 한다. 그 아기들은 제대로된 외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떤 엄마와 아빠들은 '우리 아이가 저렇게 잘 움직일수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며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키즈카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이라서 그랬다. 아기들이 무대위를 활보하니, 연극에서의 관객 역할의 진수를 보게 되었다. 아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연에 개입하니, 저절로 작품의 살아있는 변주가 일어났다. 이것이 영화와 영상에서 구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공연의 영상화가 가능하다 혹은 안하दा의 문제를 떠나 온전히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푸름: 연극치료 수업을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5회는 온라인, 5회는 오프라인으로 했다. '몸으로 하는 활동작업이 중요한데 효과가 있을까?' '컨택이 중요한데, 에너지장이 중요한 활동인데?'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해보니 온라인 활동은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한것 같다. 뒀업을 먼저 온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끝날때쯤 보니 우리는 총 10번을 만났지만 결국 5번을 만났다는것으로 감각이 되더라. 학생들도 많이 아쉬워했다.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 하다 생각한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 오프라인 활동이 정 힘들면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최소한의 어떤 활동을 할수는 있지만 오프라인의 활동에서 느낄수 있는 최대치의 효과를 동일하게 기대 할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온라인 활동은 막 아쉬운게 느껴졌다. 갈증이 느껴졌다.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을 위한 미끼처럼 사용하면 어떨까 싶다. 온라인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대중화의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온라인보다는 적은 인원이 직접 만나 활동을 하는것으로 연결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오프라인 현장으로 온다면 '앞으로 연극이 더 비싸지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윤수: 영화관이 현재 관객이 줄어서 티켓값을 올린다고 하다. 그래서 연극이랑 그 값이 같아지면 공연 예술 산업이 더 유리 할 수 있다.

혜원: 온라인 활동을 하다 오프라인 활동을 하니 직접 대면, 컨택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관계와 교감이 더 끈끈해지는 것 같다. 갈증이 더 생기는 느낌이다.

2. 코로나 시대의 우울감 무력함 막막함에 대한 예술가들의 경험과 그것을 건강하게 언택트로 승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작성자: 고명희)

푸름: 현장에서는 모두의 이슈일 거 같다. 줌으로라도 서로 만나서 활기를 가지고, 소수로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매체를 활용한 창작으로 가서 그 것을 만남으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 편지든 온

라인이든 계속 말하고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활동'을 시작하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윤수: 작업을 안 하면 배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능 방송하는 사람들이 알미운 마음이 든다. 무대 하는 사람들은 못 하고 있는데. 내가 저기 나가고 싶어는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나. 하나 좋은 생각이 든 것은 코로나로 인해 책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치료제 같은 느낌이 있다. 요즘 미라클 모닝과 아티스트 웨이를 하고 있다. (나라와 명희도 하고 있다. 같이 줌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나라: 요즘 퇴사가 취미고, 다 주식한다고 한다. 최근에 기후 위기 세미나를 듣고 발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주제가 기후 우울이었다. 한 개인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데 국가나 집단은 꿈쩍도 안 하니까 무력감, 우울감이 든다는 내용이 있었다. 부정적 감정 안에는 진짜 살아 숨쉬는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절망이 되는 것 같다. 그 감정 밑바닥 안의 욕구를 스스로 살피고 감정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 적어도 어떠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사람을 못 만나서인지, 생계의 문제인지, 안전의 문제인지 본인이 알아차리고 그 것을 설명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위로하고 욕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줌에서라도 더 솔직하게 말하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혜원: 줌을 하면서 진짜 잘 못 만나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다. 평소라면 안 했을 텐데.

명희: 예술가들과 각자의 영감을 매일 작성해 편지로 주고받고 있다. 예술가는 사회의 문제와 이슈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이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술가가 띄우는 편지가 우리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다.

윤수: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풀어내는 게 좋은 것 같다.

푸름: 대학교 때 방학 때 못 만나잖아요. 책을 읽고 줄을 치고 느낀 점을 나눠서 그것을 소포로 보내는데 누군지 몰라요. 번호만 주어지고. 방학 때 책만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라: 나도 농사 공동체에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다.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편지를 띄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윤수: 나도 북클럽에서 요즘 이렇게 하고 있다.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신기하다.

혜원: 나도 하고 싶다. 아날로그가 필요해.

3. 이런 언택트 시대에 다시 관객과의 만남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이 뭐가있을까? 또 예술가들의 생계는 지원금 말고 어떻게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 (작성자: 노푸름)

윤수: 소수가 키워드 일듯 하다.

나라: 소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윤수: 관객의 숫자가 소수인 것.

나라: 질문이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언택트의 시대의 '관객과 만나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공연 영역에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고, 그것을 예술인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핵심인 듯 하다. 배우는 캐스팅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늘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다른 부수적인 것과 함께 돈을 버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사회 시스템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에서 노동이 아닌 것으로 돈을 버는 시대로 넘어 가는 듯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창업을 참 많이 한다. 그런데 '왜 배우는 창업을 하지 않나?' 싶다. 배우도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출, 공연, 지원금이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된듯 하다. 최근에 이런 활동을 하는 배우들이 있다. 한달에 한번 또는 이주에 한번에 영상 서비스를 보내주고 구독을 하는 형태로 하는 배우들이 있다. TV나 영화 등 너무 획일화 된 매체의 한계를 이미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독창성을 활용한 매체, 콘텐츠가 뜨고 있다. 현재 나도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 콘텐츠가 나의 관심사에 맞다. 획일화 된 콘텐츠가 아닌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온듯 하다.

윤수: 공감한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한테도 BJ 안하냐고 한다. 콘텐츠가 다양하다면 누구나 공연과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면 될듯하다.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 수 있을 듯 하다.

혜원: 찾아가는 공연도 생각이 든다. 1인 1공연 처럼. 가정 방문 공연 같이.

윤수: 나도 생각한 적이 있다. 공연 딜리버리 서비스를 생각했었다. 관객이 원하는 요구를 수용해서 맞춤으로(의뢰인, 대상이 원하는, 좋아하는 음악과 의미등) 공연을 제작해서 찾아가도 좋고 직접 가서 연극 보여주는 등의 형태로 하면 좋을 듯하다.

명희: 사실 나는 한사람을 위한 공연의 콘텐츠를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런 콘텐츠가 좋은 점이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연 딜리버리와 키트 발송도 해보았다.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공연을 제작하고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렇듯이 이미 독립공연 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해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보면서 연극의 형태를 다양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종종 주변 연극인들이 "이런 것이 희곡이예요? 이런 것이

연극이에요?”라며 묻더라. 연극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 해보아야 할듯 하다. 기존에 생각해온 연극의 형태를 깨는 것이 무섭다고도 하더라.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할듯 하다.

푸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허전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의 욕구가 많다. 예술은 그것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소하는 것을 돕는 역할 할 수 있다고 본다. 삶 속으로 녹아드는 연극을 해야 할듯 하다. 형태가 부서져서 삶으로 녹아드는.

혜원: 플레이백 시어터에서 줌으로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의 느낌을 살려서 하면 좋을 듯 하다. 실시간의 느낌이 중요할듯 하다. 영상은 공들여서 찍어야하지만 라이브는 그 당시에서

윤수: 코미디 빅리그 같은 것을 보면 관객도 실시간으로 보고 하는것이 좋아 보인다.

혜원: 맞다. 연결되는 느낌이 중요한듯 하다.

#소감: 이런 기회가 너무 좋다! 나에게 영감도 주고 서로 위로도 되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너무 생산적인 활동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